

# 내방객 관광소비지출 통한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지역관광위성계정 통한 지역경제 내 관광부가가치 추계\*

임재영\*\*, 류종현\*\*\*, 김재구\*\*\*\*, 고태호\*\*\*\*\*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들과 외국의 선행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지역경제 내 관광의 기여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제기구의 권고안에 입각 지역 내방객들의 관광소비지출 자료로부터 관광부가가치와 관광고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관광거래가 규명되는 작업이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지역경제 내 각 산업별 관광부가가치와 관광고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강원도는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관광부문의 경제적 기여도가 월등히 큰 지역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널리 인식되었던 사실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 객관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핵심용어 :** 지역관광위성계정(TSA), 관광소비지출, 지역간 관광거래, 관광부가가치, 관광 GRDP.

\* 본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의 2011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됨  
\*\* (주저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chvim@cdi.re.kr](mailto:chvim@cdi.re.kr)  
\*\*\* 강원발전연구원 II연구본부 연구위원, [rjh@gdri.re.kr](mailto:rjh@gdri.re.kr)  
\*\*\*\*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 부연구원, [ppikoo@jthink.kr](mailto:ppikoo@jthink.kr)  
\*\*\*\*\* (교신저자) 제주발전연구원 경제환경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goto@jdi.re.kr](mailto:goto@jdi.re.kr)

## I. 서 론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대안으로서 지역 고유의 자연이나 문화,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널리 적용되어 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관광은 삶의 재충전 수단으로 경제주체인 개인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 개선 문제 등과 직결되어 경제활동에 활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나 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여지를 남겨두면서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활동으로서 관광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지 못했다. 관련된 국제기구들에서 계속 언급해왔듯이 이는 경제 내에 포함된 관광산업의 실체에 대한 표준적 정의와 그 분류체계의 미비에 기인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규모 등에 대한 분석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제간 또는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표준안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UN, 세계관광기구(WTO) 등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광의 표준화된 정의 및 이의 실제파악을 위한 지침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으로 대변될 수 있다(WTO, 1999, 1998; OECD, 1999a,b, 1998 외).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관광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관광계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산업 실제규명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CEC, OECD, WTO and UN(2001)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권고안과 Barber-Dueck and Kotsovos(2002)의 캐나다 PTSA(provincial and Territorial TSA) 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지역단위에서 산업활동으로서 관광의 비경제적 기여도 분석작업이 이루어진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OECD 회원국으로서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0)에서 국민경제 단위의 관광위성계정인 KTSA를 작성 발표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국내사례는 임재영과 류종현(2010)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선행적(prototype) 특성의 것으로, 공간적으로도 강원도로 한정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완결된 것이 아니며, 지역경제단위에서 국제기구들의 관광계정 작성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의 의견조정과정을 통한 합의도출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sup>1)</sup>.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의 실제규명과 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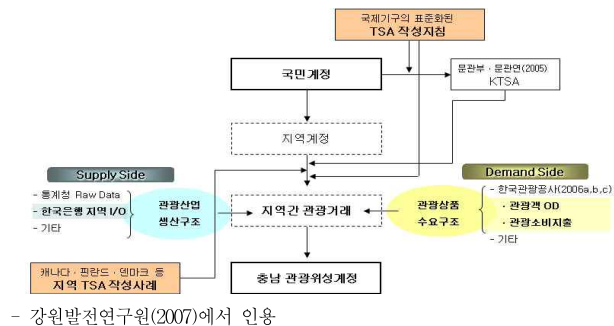
1)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충청남도과 강원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 등의 지역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조정 과정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역의 관광산업 실제규명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관광위성계정의 기본내용과 구성 등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경제 내에서 부가가치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음 제 3단계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가 부가가치와 고용 등의 측면에서 제시되며, 이들에 대한 지역간 비교결과가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후속과제 등이 논의된다.

## II.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

## 1.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 및 전제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어감에 따라 관광경제 측면에서 이의 정확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국제기구들에 의해 관광위성계정 작성이 제안되고, 현재 이 작업이 법제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회원국으로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한 바 있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2000). 지역경제 차원에서 강원도나 제주도 같이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자 지역 내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관광경제계정 작성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광경제 분석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내 여러 지역들 간 공동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그림 1) 지역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과정

그러나 국내에서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은 공식적으로 시도된 사례가 없으며, 당연히 이의 작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문헌연구를 통해 국제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 작성지침 및 외국의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 작성 사례를 검토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을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리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임계영·류종현(2010)과 강원발전연구원(2007) 등을 참조). 단, 본 논문에서 관광위성계정을 구성하는 각 계정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나 WTO 등 국제기구들의 여러 출간물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경제와 지역경제계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과 지역관광위성계정을 선행적으로 발표한 해외사례들(Barber-Dueck and D. Kotsovos, 2002; Pyatt and Round, 1985; Miller and Blair, 1985; 한국은행, 2004, 1997, 1991 외)을 검토한 결과, 지역간의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가 계정 상에 반영되느냐 여부가 지역계정의 핵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관광계정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지역간 거래란 특히 지역간의 관광거래로 대변되며, 캐나다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관광객들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의 지역구분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관광부문의 지역간 거래를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의 관광거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민경제가 다수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경제로 구분한다.

관광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관광 및 관련 산업과 그들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소비측면에서, 국내에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실태조사 통계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실태조사는 외국인의 국내관광, 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관광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이들 세 부분의 관광실태는 계속해서 조사 발표되고 있다. 이는 해외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sup>2)</sup>

다음 공급측면에서 현재 국내에서 산업별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체계 내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가 유일하다. 기존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 KTSA 역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 산업연관표가 활용되고 있다(OECD, 2000). 따라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정기적(매 5년 단위)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우리나라를 6대 권역으로 구분한 지역 산업연관표(2003년 기준)를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다시 2009년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16개 광역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준년도는 2005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인 캐나다의 지역관광위성계정인 PTSA(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 작성과정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Barber-Dueck and D. Kotsovos, 2002).

2) 단, 현재 관광재 소비지출 조사자료의 관리주체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논문의 뒷부분에서 재론될 것임

본 논문에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광위성계정 작성기준, 구체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의 안을 기초로 한다. 이 권고안은 SNA1993 프레임워크 하에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지침이나 권고안에서도 SNA가 기준이 되어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CEC, OECD, WTO and UN(2001)의 안은 여러 차례의 의견조정 과정 후에 국제기구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종합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재영·류종현 2010)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지역관광위성계정은 캐나다의 PTSA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단, 국내에서 관광수지표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극히 부분적으로만 작성될 수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 PTSA의 경우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를 강조하고 관광상품 및 산업 리스트의 제공과 관광관련 부가가치 추계 등에 있어 국제기구들의 표준안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GTSA의 작성과정에서는 "관광소비지출"과 관광관련 "부가가치 및 고용"이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으며, 이외 정부의 관광소비 및 고정자본형성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산업 및 상품분류기준은 국제기구의 표준안이나 캐나다의 사례와는 달리, 국내의 통계자료 생산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나 KTSA에 제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은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이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을 때, 그 결과물의 지역간 합은 결국 전국 관광위성계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이 역시 캐나다 PTSA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GTSA 작성결과물의 현실적합성 여부는 전국단위 KTSA 결과와의 비교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sum_r RTSA_i^r \begin{pmatrix} > \\ = \\ < \end{pmatrix} KTSA_i \Leftrightarrow RTSA \text{ 현실적합성 } \begin{pmatrix} \times \\ \bigcirc \\ \times \end{pmatrix} \quad (1)$$

$RTSA$ : 지역 관광위성계정,  $KTSA$ : 전국 관광위성계정,

$r$ : 지역( $r=16$ 개 광역시도),  $i$ : TSA 구성항목( $i$ =부가가치, 고용, 관광소비지출 등).

그러나 임재영·류종현(201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의 전국 관광위성계정은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논란의 여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전제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 2. 관광부가가치의 추계

경제이론과 그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경제와 그 산업부문의 활동내역을 대변하는 것이 주로 부가가치와 생산규모이다. 특히 부가가치는 지역경제 내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 및 중간원자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분배→지출"이라는 경제의 순환과정을 알려주는 핵심요소이다(한국은행 2004 외). 이에 부가가치를 통해 경제 및 산업활동의 고용과 소비구조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해준다<sup>3)</sup>. 따라서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added, TVA)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추계는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주요 목적이자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관광부가가치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관광 GDP의 의미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표 1>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란 이미 관광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산업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어 있지 못한 경우, 이의 적용은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반면 관광부가가치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 관광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광객(방문객<sup>4)</sup>)들에 의해 발생된 소비지출에 대응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그리고 관광GDP(또는 관광GRDP)는 국민경제(또는 지역경제) 내 관광부가가치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CEC, OECD, WTO and UN 2001 외).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을 참고하면, 이러한 관광부가가치 추계과정에서 관련된 고용과 자본 등 생산요소 관련 구체적 정보는 물론 그의 총생산 규모 역시 파악 가능하다<sup>5)</sup> 따라서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과정은 관광의 경제 내 기여도를 판단하는 첫 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 1> 관광부가가치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관광 GRDP의 구분

생산주체	소비주체	관광산업 부가가치	관광부가가치(TVA)	관광 GDP
관광산업	방문객	○	○	○
	비방문객	○	X	X
비관광산업	방문객	X	○	○
	비방문객	X	X	X

-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인용.

이러한 관광부가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4, 2000)의 우리나라 관광위성계정 KTSA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부가가치를 추계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KTSA는 OECD보다는 주로 세계관광기구(WTO)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요계정에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및 구축과정은 WTO의 안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급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

- 3) 생산자이론과 소비자이론 등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다루고 있는 경제학교과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4) 모든 관광위성계정 작성지침에 따르면 관광소비지출의 주체가 방문객(visitors)임을 명시하고 있음.
- 5) 생산자 이론에서 생산함수의 특성과 함수 내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의 총생산과 부가가치와의 관계, 그리고 노동과 자본 등을 생산요소로 하는 부가가치 생산함수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체적 관계는 결정된다.

설명은 생략된 상태에서 식(2)의 일반적인 투입산출모형(IO model)의 총생산액과 최종수요와의 관계만을 열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X = (I - A)^{-1} F \quad (2)$$

$X$ : 최종생산 벡터,  $F$ : 최종수요 벡터,  $A$ : 투입계수행렬,  $I$ : 대각선이 1인 항등행렬.

이 보고서들에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분리하여 개별산업의 관광비(tourism ratio)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공급측면 관광비(STR)의 도출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사된 관광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해 정리된 관광수요를 통해 산업연관 모형의 기본적인 최종수요와 총산출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유발된 부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공급측면의 관광비 STR(=관광부가가치/부가가치)을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다(p.146).

그런데 여기서 만일 식(3)과 같이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widehat{AV}$ , 여기서  $AV = (av_1, \dots, av_n)$ ,  $av_j = VA_j / X_j$ )을 상기 식(2)에 대입함으로써 부가가치 승수행렬을 도출하여 관광수요(=관광소비지출)를 통해 관광부가가치가 계산된다면, 그것은 관광상품(또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화와 상품의 수요로부터 유발된(induced) 부가가치일 뿐이다. 이 유발된 효과에는 소비변화로 인한 직접 효과와 함께 이들이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거하여 지역경제에 무한정으로 미치는 간접적 유발효과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김홍배 2005). 즉, 우리나라 KTSA의 관광부가가치 추계과정은 국제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나 관광부가가치 등의 측정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

$$VA^T = \widehat{AV} \cdot (I - A)^{-1} \cdot F^T, \quad (3)$$

$VA^T$ : 산업별 관광부가가치 벡터,  $(I - A)^{-1}$ : IO 승수행렬(Leontief 행렬),

$AV$ : 부가가치계수행렬( $AV = (av_1, \dots, av_n)$ ,  $av_j = VA_j / X_j$ ),  $F^T$ : 산업별 관광소비지출액 벡터.

$\widehat{AV}$ :  $AV$ 의 대각행렬(diagonal matrix).

이러한 사실은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에서 KTSA에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들의 표준안이라 할 수 있는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과 캐나다 PTSA의 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즉, 경제 내 산별 생산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그 산업의 산출액과 일정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면, 당 산업의 전체 산출규모 중 얼마나 관광소비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관광부가가치는 계측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업종별 관광소비 지출금액에 대해 업종의 부가가치 계수를 그대로 대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내 산업별 관광부가가치는 도출되는 것이다.<sup>6)</sup>

6) 이러한 논리는 업종별 총생산액과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측면의 관광비(tourism ratio = 업종별 관광소비지출액/업종별 총생산)는 관광부가가치 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는 조사된 관광소비지출 자료를 기초로 위 식과 같이 부가가치 승수행렬( $\widehat{AV} \cdot (I - A)^{-1}$ )을 통해 각 산업부문별로 유발된 관광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 결과를 통해 공급측면의 관광비(supply side tourism ratio)=(업종별 관광부가가치/업종별 전체 부가가치)를 추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관광소비를 통해 유발되는(induced) 부가가치"로서, 이를 곧바로 방문객들의 관광소비품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직접적인 관광부가가치로 간주하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UN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는 그것들이 중간재와 최종재로 수요되는 총 규모와 동일하다<sup>7)</sup>. 따라서 굳이 행렬과 벡터들로 구성된 식이 아니라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조사자료에 각 산업부문별로 도출되는 부가가치 계수만을 대입해도 각 산업별 관광부가가치는 추계될 수 있다. 참고적으로 OECD에 제출된 세계 각국의 TSA 결과보고서에도 우리나라만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관광비를 제출하고 있다(OECD, 2000). 이러한 내용은 KTSA의 작성 중 각 산업부문별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결과 및 과정에 의견조정과 수렴과정이 필요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재영·류종현, 2010, pp. 352-353.)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그 산업의 생산규모 중 얼마나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관광부가가치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의 측정은 그 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생산함수 특성<sup>8)</sup>만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지출 대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에 각 산업 부문별로 그 산업 고유의 부가가치 계수나 고용자 투입계수 등을 적용하면 관광부가가치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쉽게 측정

임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여기에 포함된 수식은 일반적인 CGE 모형체계 내에 포함된 것으로 김홍배·임재영(2006)과 최승묵(2008), Gooroochum and Milner(2005) 등이 제안한 모형에서도 확인가능함

- 지역내 업종별 총생산: 개별산업의 생산기술은 식(a1)에서와 같이 Leontief의 고정계수 함수로 특징됨을 전제

$$X_i^r = Min \left( \frac{INT_{1i}^r}{a_{1i}^r}, \frac{INT_{2i}^r}{a_{2i}^r}, \dots, \frac{INT_{ni}^r}{a_{ni}^r}, \frac{VAX_i^r}{av_i^r} \right), \quad \dots(a1)$$

$i, j$ : 산업,  $r, s$ : 지역,  $X_i^r$ : 지역재,  $INT_{ij}^r$ : 중간재,  $VAX_i^r$ : 부가가치,  $a_{ij}^r$ : 중간투입계수,  $av_i^r$ : 부가가치 계수.

- 부가가치 함수: 식(A23)에서와 같이 노동, 자본 등을 투입요소로 하는 Cobb-Douglas 형태임을 가정

$$VAX_{i,t}^r = ad_i^r \cdot L_{i,t}^r \cdot K_{i,t}^r \cdot K^{(1-\alpha_i^r)}, \quad \dots(a2)$$

$ad_i^r$ : 총요소생산성,  $\alpha_i^r$ : 노동소득배분율,  $L_i^r(K_i^r)$ : 노동(자본) 규모.

7) 산업연관표(IO table)의 각 산업부문별 행합(row sum)과 열합(column sum)이 일치하고(Miller and Blair 1975, 외),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에서 각 부문별 수입(receipts)과 지출(expenditure)의 합이 일치한다(Pyatt and Round, 1985)는 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결국은 산업의 생산활동과 이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나타냄. 이러한 관계식은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로부터 쉽게 확인됨.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경우 도출되는 관광부가가치나 관광고용의 규모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식적으로 관광객들의 소비품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산업들의 산출물도 관광 관련 상품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제거해 준다.

### III. 지역별 관광소비지출과 관광부가가치 추계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내 관광산업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요측면이 우선되는 관광의 특성 상, 관광객들이 관광(또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관광이 끝난 후까지 관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광소비지출이 관광부가가치의 추계에 있어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일단 관광소비지출이 파악되면, 이 소비에 상응하는 산업의 생산활동이 규명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OECD 1999; WTO, 1999; CEC, OECD, WTO and UN 2001 외).

#### 1. 관광소비지출

일반적으로 관광소비지출은 <표 2>와 같이 구분되는데, 이중 국내의 산업별 부가가치 추계와 관련된 관광소비지출은 국내관광소비(국민국내관광+외국인국내관광)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국민해외관광소비를 관광부분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민해외관광도 관광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관광소비에 대한 관광부가가치의 추계작업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표 2> 관광소비지출 구분

구분	국내 관광부가가치에 영향 여부
국민국내관광소비(A)(domestic tourism consumption)	○
국민해외관광소비(B)(outbound tourism consumption)	
외국인국내관광소비(C)(inbound tourism consumption)	○
<b>국내관광소비(D = A + C)(internal tourism consumption)</b>	<b>○</b>
국민관광소비(E = A + B)(national tourism consumption)	

-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인용

#### 1) 국민국내관광소비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부가가치의 추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규모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거주지역(origin)과 관광목적지역(destination)의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관광과 관련된 공간적 이동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관광활동 전과 중, 그리고 후 모두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관광소비지출은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방문지역 모두에서 발생하며<sup>9)</sup>,

지역의 부가가치 측정과정에서 소비지출 발생의 공간적 구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관광목적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련소비지출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지역간 관광거래의 핵심사항이다.

한국관광공사(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국내여행비용은 <표 3>과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특히 (그림 1)에서는 관광객들의 거주지역별로 여행비용의 세목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도 주민들의 여행비용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 외에도 호남권과 충청권,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의 관광소비성향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참고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여행비용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상 교통비용과 숙박비용 지출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5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국내여행비용

구분	국내여행비용(A+B)		숙박여행국내여행비용(A)		당일여행(B)	
	(천원)	(비율)	(천원)	(비율)	(천원)	(비율)
패키지비	31.1	7.9%	24.0	8.8%	7.1	6.0%
숙박비	26.1	6.7%	26.1	9.6%	-	0.0%
식음료비	89.6	22.9%	56.6	20.8%	32.9	27.9%
교통비및자동차임대비	99.8	25.5%	67.4	24.7%	32.4	27.4%
여행사지불비	0.4	0.1%	0.3	0.1%	0.1	0.1%
문화서비스비	5.5	1.4%	3.1	1.1%	2.3	2.0%
운동및경기비	3.5	0.9%	1.9	0.7%	1.6	1.4%
오락서비스비	22.1	5.7%	16.0	5.9%	6.1	5.2%
기념품및쇼핑비	32.3	8.3%	19.4	7.1%	12.9	10.9%
여행보험비	0.2	0.0%	0.1	0.0%	0.1	0.1%
장비임대비	1.9	0.5%	1.3	0.5%	0.6	0.5%
기타비용	78.4	20.1%	56.4	20.7%	22.0	18.6%
(합계)	390.9	100.0%	272.7	100.0%	118.2	100.0%

- 자료: 한국관광공사(2006)



- 자료: 한국관광공사(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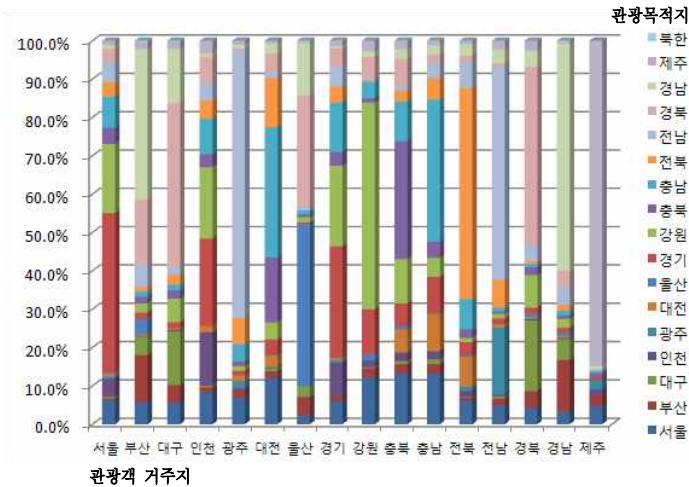
- 숙박과 당일여행으로 구분된 내국인 관광객 거주지역별 여행소비성향 자료는 부록에 제시됨.

(그림 1) 지역별 1인당 여행비용(국민국내관광) 내역(2005년 기준)

9) 관광목적지가 복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따라 이동 중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에 대한 고려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지역별 국내관광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광객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광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즉, 관광객들의 관광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소비지출 규모가 제시되어야 지역간 관광거래가 구체적으로 규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국내여행 실태조사의 내국인 관광객들의 여행방문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관광목적지별 내방관광객 규모를 파악한다.



- 자료: 한국관광공사(2006)  
- 숙박과 당일여행으로 구분된 내국인 관광객 거주지역별 여행소비성향 자료는 부록에 제시됨.

(그림 2) 2005년 기준 관광객 거주지역별 관광목적지(국내여행 전체)

<표 4> 국민국내여행비용(관광소비지출) 발생 공간의 전제

비용항목	소비 발생지역	비용항목	소비 발생지역
패키지비	거주지	운동및경기비	여행지
숙박비	여행지	오락서비스비	여행지
식음료비	여행지	기념품및쇼핑비	여행지
교통비및자동차임대비	거주지/여행지 각 1/2 적용	여행보험비	거주지
여행사지불비	거주지	장비임대비	여행지
문화서비스비	여행지	기타비용	거주지/여행지 각 1/2 적용

- 임제영·류중현(2010)에서 인용.

따라서 한국관광공사(2006) 국민국내여행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제시되는 경우(부록 참조),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국내여행비용의 규모는 추계될 수 있다. 단, 지역간 관광거래를 구체화하는 지역관광위성계정을 통해 지역별 관광부가가치를 제시하려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상, 내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소비를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임제영·류중현(2010)에서와 같이 내국인들의 관광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제를 <표 4>와

같이 전제한다. 단,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보완조사를 통해 현실적 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와 모집단 자료 및 국민 일인당 평균 국내관광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국민국내관광소비지출 규모는 다음의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국내관광소비지출 규모는 14조 6,834억원이며,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광목적지역별 소비지출규모는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관광객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부합되게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관광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보면 부록에 제시된 관광목적지 방문을 자료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5> 2005년 기준 국내 지역별 관광소비지출

구분	관광객거주지 기준		관광목적지 기준	
	(십억원)	(비율)	(십억원)	(비율)
서울	3,109.8	21.2%	1,669.2	11.4%
부산	1,151.8	7.8%	739.6	5.0%
대구	582.6	4.0%	434.9	3.0%
인천	690.0	4.7%	515.9	3.5%
광주	453.5	3.1%	276.4	1.9%
대전	422.3	2.9%	313.5	2.1%
울산	281.1	1.9%	201.3	1.4%
경기	2,609.6	17.8%	2,111.4	14.4%
강원	424.7	2.9%	1,534.4	10.4%
충북	529.5	3.6%	597.6	4.1%
충남	670.2	4.6%	1,146.9	7.8%
전북	732.8	5.0%	864.9	5.9%
전남	837.8	5.7%	1,264.9	8.6%
경북	860.3	5.9%	1,259.5	8.6%
경남	1,073.6	7.3%	1,301.0	8.9%
제주	253.9	1.7%	427.5	2.9%
북한지역	-	-	24.5	0.2%
(합계)	14,683.4	100.0%	14,683.4	100.0%

- 자료: 한국관광공사(2006)

지역별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에서 소비한 관광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간 관광거래표는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관광목적지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관광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관광소비지출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참고적으로 관광목적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소비 유형별 소비지출 규모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표 6> 지역간 관광거래표(국민국내관광)

(단위: 십억원)

관광지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서울	1,102.6	16.3	9.6	70.3	13.0	25.9	10.8	607.4	475.4	85.1	213.2	106.8	177.6	121.9	33.0	40.9	-
부산	56.7	444.0	27.2	2.5	-	3.4	26.7	17.1	24.0	14.9	11.7	10.0	51.4	130.2	305.1	20.5	6.3
대구	22.3	15.9	225.9	2.8	-	1.7	-	7.3	29.4	8.8	6.4	13.1	9.1	163.7	62.4	12.0	1.9
인천	28.3	8.6	2.4	241.0	-	8.6	-	99.4	100.6	18.7	55.1	28.3	27.0	44.5	6.2	21.4	-
광주	29.4	8.7	-	1.3	130.1	5.2	-	6.3	6.2	6.5	22.1	21.0	207.0	0.9	3.4	5.3	-
대전	35.2	5.6	1.7	0.7	0.8	150.6	0.7	13.7	12.6	45.6	89.8	35.7	3.9	15.8	7.4	2.4	-
울산	4.5	13.7	11.9	-	-	-	133.6	1.6	6.7	3.2	3.4	-	2.1	49.5	47.4	1.7	1.9
경기	92.6	32.3	-	141.3	16.9	12.6	3.1	1,190.9	430.4	79.7	233.4	92.9	117.6	111.5	14.7	35.3	4.4
강원	37.2	10.3	0.4	6.6	0.5	-	4.2	35.6	272.4	2.5	18.5	2.1	3.0	13.7	5.7	11.9	-
충북	44.1	10.1	2.5	9.5	-	20.3	4.3	22.5	46.5	265.9	39.3	8.4	5.1	28.6	11.0	10.1	1.3
충남	60.4	14.0	4.0	11.4	-	33.6	1.1	46.1	27.2	20.2	385.0	24.1	13.2	10.2	11.1	7.2	1.6
전북	36.0	4.6	1.2	12.5	5.8	39.2	2.5	27.0	9.2	14.0	41.8	463.7	40.7	8.2	17.5	7.6	1.4
전남	41.7	14.2	4.9	5.0	97.9	7.3	0.8	11.2	10.9	4.2	7.9	43.2	540.3	5.5	21.4	20.3	1.1
경북	30.1	25.9	113.6	2.8	1.5	1.5	5.7	10.9	56.4	13.2	6.4	4.8	27.5	515.1	22.4	22.6	-
경남	35.5	103.9	29.7	2.5	1.4	3.5	7.8	13.1	26.4	10.6	10.9	10.9	38.4	39.3	729.1	5.8	4.6
제주	12.6	11.4	-	5.7	8.4	-	-	1.5	-	4.4	2.1	-	1.1	0.9	3.1	202.6	-

- 한국관광공사(2006)

## 2) 외국인국내관광소비

앞서 <표 1>과 <표 2>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들의 국내관광소비지출 역시 관광부가가치의 추계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023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한 관광비용이 평균 1,264\$/명으로 총 외래객들의 국내관광소비지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7조 7, 981억원에 달한다(한국관광공사 2006; 한국관광통계 외). 이러한 거대한 소비규모는 특히 외래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목적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관광시 일인당 평균 및 전체 관광소비지출 규모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외래관광객 국내관광 소비지출 추계위한 기초자료(2005년 기준)

세부항목	평균 국내지출경비 (\$/명)	총 국내관광 소비지출(십억원)	비고
숙박비	482.0	2,973.7	외래객입국자수 6,023천명  환율: 1\$=1,024.31원
쇼핑비	322.0	1,986.6	
식음료비	227.0	1,400.5	
교통비	107.0	660.1	
오락관련지출	38.0	234.4	
한국여행사지불비용	20.0	123.4	
문화관련지출	12.0	74.0	
운동관련지출	5.0	30.8	
기타비용	51.0	314.6	
합 계	1,264.0	7,798.1	

- 한국관광공사(200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05년 기준 외래객 국내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로 국내 관광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에서는 2009년도부터 외래객들의 국내여행 목적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외래객들의 국내여행 목적지 방문성향이 2009년도와 동일함을 전제로 2005년도의 각 지역(관광목적지역)별로 외국인 국내관광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며, 그 결과는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8> 지역별 외래관광객 국내관광소비지출\*(2005년 기준) (단위: 십억원)

구분	숙박비	쇼핑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 지출	한국여행사 지불비용	문화관련 지출	운동관련 지출	기타비용	(합계)
서울	1,357.9	907.1	639.5	301.4	107.1	56.3	33.8	14.1	143.7	3,560.9
부산	362.5	242.2	170.7	80.5	28.6	15.0	9.0	3.8	38.4	950.7
대구	0.6	0.4	0.3	0.1	0.1	0.0	0.0	0.0	0.1	1.7
인천	184.3	123.1	86.8	40.9	14.5	7.6	4.6	1.9	19.5	483.3
광주	24.7	16.5	11.6	5.5	1.9	1.0	0.6	0.3	2.6	64.7
대전	54.0	36.1	25.5	12.0	4.3	2.2	1.3	0.6	5.7	141.7
울산	0.4	0.3	0.2	0.1	0.0	0.0	0.0	0.0	0.0	1.0
경기	468.3	312.9	220.6	104.0	36.9	19.4	11.7	4.9	49.6	1,228.2
강원	196.5	131.3	92.5	43.6	15.5	8.2	4.9	2.0	20.8	515.3
충북	23.7	15.8	11.2	5.3	1.9	1.0	0.6	0.2	2.5	62.2
충남	32.8	21.9	15.4	7.3	2.6	1.4	0.8	0.3	3.5	85.9
전북	21.4	14.3	10.1	4.8	1.7	0.9	0.5	0.2	2.3	56.2
전남	25.8	17.2	12.2	5.7	2.0	1.1	0.6	0.3	2.7	67.7
경북	2.9	2.0	1.4	0.7	0.2	0.1	0.1	0.0	0.3	7.7
경남	0.1	0.1	0.1	0.0	0.0	0.0	0.0	0.0	0.0	0.4
제주	217.5	145.3	102.5	48.3	17.2	9.0	5.4	2.3	23.0	570.5

- 외래객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기준임

## 2.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고용의 추계

앞 절에서 설명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각 관광목적지역별 소비지출은 결국 해당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산측면에서 증가된 수요에 상응하는 생산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지역 내 업종별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생산자이론을 적용하여, 지역 내 총생산과 부가가치 창출과의 관계를 적용하면 쉽게 추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내 각 산업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산업연관표모형에서와 같이 투입요소간 대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Leontief 함수로 전제하고<sup>10)</sup>, 앞에서 추계된 내외국인들의 국내 각 지역별 세부품목별 관광소비지출 자료를 대입하여 지역의 산업별 관광부가가치를 추계한다. 추계를 위해 적용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 투입계수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추계된 각 지역경제별 관광부가가치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단, 여기에 제시된 관광부가가치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전 산업부문에서 관광소비지출에 대응되어 창출된 관광부가

10) Leontief 함수 외에 Cobb-Douglas,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 등이 생산자이론을 적용한 분석과정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가치의 합으로서, <표 1>의 기준에 의거 관광 GRDP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부문별 관광부가가치 추계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sup>11)</sup>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총 10조 6,111억 원의 관광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지역내 관광 GRDP가 지역경제 내 전체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G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와 6.8%로 전국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에서 관광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고용 추계결과(2005년 기준)

구분	부가가치(십억원)			취업자수(천명)		
	부가가치 계(A)	관광부가가치(B)	(B/A×100)	취업자 수 계(C)	관광고용(D)	(D/C×100)
서울	199,095.5	2,278.6	1.1%	3,922.6	88.7	2.3%
인천	41,514.4	431.8	1.0%	808.2	20.4	2.5%
경기	170,664.1	1,648.7	1.0%	3,489.9	69.6	2.0%
(수도권소계)	411,274.0	4,359.1	1.1%	8,220.7	178.7	2.2%
대전	20,749.5	224.2	1.1%	432.2	10.4	2.4%
충북	24,626.7	327.4	1.3%	593.1	16.5	2.8%
충남	45,573.1	582.5	1.3%	919.6	29.8	3.2%
(충청권소계)	90,949.2	1,134.0	1.2%	1,944.8	56.7	2.9%
광주	19,128.0	167.8	0.9%	429.2	8.8	2.0%
전북	24,359.2	443.5	1.8%	689.1	24.5	3.6%
전남	44,256.9	572.3	1.3%	871.3	33.6	3.9%
(호남권소계)	87,744.1	1,183.7	1.3%	1,989.5	66.9	3.4%
대구	28,100.5	215.4	0.8%	728.0	11.1	1.5%
경북	58,585.9	568.5	1.0%	1,133.7	31.0	2.7%
부산	47,785.9	806.9	1.7%	1,127.4	37.9	3.4%
울산	40,464.1	91.6	0.2%	411.6	4.0	1.0%
경남	56,072.2	635.4	1.1%	1,262.4	30.4	2.4%
(영남권소계)	231,008.6	2,317.8	1.0%	4,663.0	114.3	2.5%
강원	23,582.5	1,114.5	4.7%	579.9	51.4	8.9%
제주	7,423.8	502.0	6.8%	203.9	24.7	12.1%
<b>전국 계</b>	<b>851,982</b>	<b>10,611.1</b>	<b>1.2%</b>	<b>17,602</b>	<b>492.7</b>	<b>2.8%</b>

관광고용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관광부가가치 추계과정의 부산물(byproduct)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그 정의상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이외의 중간 투입요소 등이 경제 내 산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광고용을 위해 적용된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 투입계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단, 표에 제시된 고용자 투입계수는 부가가치당 고용자 투입계수가 아니라, 단위생산액 당 고용자 투입계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관광고용의 추계는 한국은행(2009)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자 투입계수를 생산액 기준에서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고용자투입계수를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11) 부록의 지역별 산업별 관광부가가치 추계결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산업대분류(28개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관광고용의 추계결과는 관광부가가치의 경우와 동일한 지역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강원도와 제주도 두 지역의 경우 관광고용이 지역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9%와 12.1%로 전국 평균의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만 전국 평균 및 지역별 관광고용의 비중이 관광부가가치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관광부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부문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며, 평균임금 규모가 높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국제기구들과 캐나다 등 해외의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을 이용하여 국내의 관광부가가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역 관광위성계정 자료들로부터 관광산업의 생산과 소비구조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관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과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과정이 요원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지역마다 경제환경(endowment)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지역발전발의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기존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획일화된 경제성장을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개인들 삶의 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이 우후죽순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이며 필수불가결한 관련 기초통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이며 자의적으로 준비된 정책과 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첩경이 되며,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지는 모든 국민들을 실망케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 현상으로, 국제기구들에서는 그 결과가 국제적으로 또 지역간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광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초통계인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경제 단위가 아닌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광통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통해 관광개발 정책과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표 10> 지역관광위성계정과 전국 관광위성계정의 결과 비교



구분	전국 관광위성계정		지역 관광위성계정
	2000년 기준	2005년 기준	
내국인			
국내 관광소비지출			
외국인			
국내 관광소비지출			
관광부가가치 합계			
관광고용 합계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국제기구들과 외국의 선행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지역경제 내 관광의 기여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경제 내 각 산업별 관광부가가치와 관광고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강원도는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관광부문의 경제적 기여도가 월등히 큰 지역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널리 인식되었던 사실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 객관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국제기구들과 캐나다 등 해외의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을 이용하여 국내의 관광부가가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역 관광위성계정 자료들로부터 관광산업의 생산과 소비구조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관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과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과정이 요원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소비지출 조사가 더 구체화되고 산업연표의 산업구분이 더 세분되는 경우 더욱 세분된 산업부문별로 관광부가가치 및 고용은 추계될 수 있다. 국제기구들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광의 경제적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 결과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CEC, OECD, WTO and UN 2001).

##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2005),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
-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 최승묵(2008), “관광정책의 대안분석에 있어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 적용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국관광공사(2005a), 「2004년 국민여행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5b), 「200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5c), 「한국관광통계연보」, <http://www.knto.or.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2009 기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한국은행(1997),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한국은행(2007), 「2003년 기준 지역 산업연표」.
- C. Barber-Dueck and D. Kotsvos(2002),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s for Canada, 1996," Research Paper Catalogue No. 13F0063XIE, <http://www.statcan.ca>.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 and Employment.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a),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DSTI/DOT/TOU/SAT(99)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b),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The Employment Module, DSTI/DOT/TOU/STAT(99)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8), A Tourism Satellite Account for OECD Countries, DSTI/DOT/TOU/STAT(98)1.
- Pyatt and Round(1985), Social Accounting Matrix: A Basic for Planning, World Bank.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0),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Accounting-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9),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The Conceptual Framework.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8a),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1998b), 1996/7 WTTC Travel and Tourism Report.

- Pyatt and Round(1985), *Social Accounting Matrix: A Basic for Planning*, The World Bank.
-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 \_\_\_\_\_(1997),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_\_\_\_\_(1991), 「국민계정해설」.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 C. Barber-Dueck and D. Kotsovos(2002),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s for Canada, 1996," *Research Paper Catalogue No. 13F0063XIE*, <http://www.statcan.ca>.
- N., Gooroochurn and C., Milner(2005),"Assessing indirect tax reform in a tourism-dependent developing country," *World Development*, vol. 33, No. 7, pp.1183-1200.

## 부 록

<부록 표 1> 국민국내여행 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사례(2005년 기준)

구분	모집단(만 15세이상인구)		사례 수	
	(명)	(비율)	(건)	(비율)
서울	8,277,970	22.0%	2,712	21.5%
부산	3,068,484	8.2%	982	7.8%
대구	2,027,967	5.4%	654	5.2%
인천	1,961,868	5.2%	658	5.2%
광주	1,079,555	2.9%	350	2.8%
대전	1,101,321	2.9%	368	2.9%
울산	788,742	2.1%	270	2.1%
경기	7,031,890	18.7%	2,628	20.9%
강원	1,228,126	3.3%	400	3.2%
충북	1,197,421	3.2%	386	3.1%
충남	1,520,139	4.0%	510	4.0%
전북	1,556,048	4.1%	498	4.0%
전남	1,651,266	4.4%	522	4.1%
경북	2,254,183	6.0%	712	5.7%
경남	2,407,084	6.4%	808	6.4%
제주	409,494	1.1%	140	1.1%
전국 계	37,561,558	1	12,598	1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2> 국민 일인당 국내숙박여행 평균지출비용 (단위: 천원)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패키지비	17.0	27.8	53.6	28.1	23.4	28.2	23.9	19.4
숙박비	24.3	24.6	22.3	21.6	24.8	28.5	24.0	40.6
식음료비	51.9	47.9	47.1	55.5	70.1	54.6	61.4	56.4
교통비	56.4	58.3	52.7	56.4	87.5	54.0	58.1	166.6
여행사지불비	0.4	0.2	0.1	0.4	0.3	0.0	0.1	-
문화서비스비	3.7	2.5	2.6	3.7	5.7	3.7	4.0	4.7
운동및경기비	0.8	2.7	1.9	1.8	1.3	1.9	0.9	2.2
오락서비스비	15.7	12.3	11.4	19.8	15.2	22.8	15.7	34.6
쇼핑비	14.4	19.2	28.7	31.6	39.6	13.9	22.1	49.1
여행보험비	0.3	0.2	0.0	0.1	-	0.3	0.2	0.0
장비임대비	0.6	1.1	0.7	2.0	0.4	1.9	2.5	0.2
기타비용	40.9	63.8	46.2	68.0	78.2	42.1	77.1	71.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패키지비	17.0	27.8	53.6	28.1	23.4	28.2	23.9	19.4
숙박비	24.3	24.6	22.3	21.6	24.8	28.5	24.0	40.6
식음료비	51.9	47.9	47.1	55.5	70.1	54.6	61.4	56.4
교통비	56.4	58.3	52.7	56.4	87.5	54.0	58.1	166.6
여행사지불비	0.4	0.2	0.1	0.4	0.3	0.0	0.1	-
문화서비스비	3.7	2.5	2.6	3.7	5.7	3.7	4.0	4.7
운동및경기비	0.8	2.7	1.9	1.8	1.3	1.9	0.9	2.2
오락서비스비	15.7	12.3	11.4	19.8	15.2	22.8	15.7	34.6
쇼핑비	14.4	19.2	28.7	31.6	39.6	13.9	22.1	49.1
여행보험비	0.3	0.2	0.0	0.1	-	0.3	0.2	0.0
장비임대비	0.6	1.1	0.7	2.0	0.4	1.9	2.5	0.2
기타비용	40.9	63.8	46.2	68.0	78.2	42.1	77.1	71.9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3> 국민 일인당 국내당일여행 평균지출비용 (단위: 천원)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패키지비	9.9	7.7	9.6	3.8	3.4	6.8	8.9	4.9
숙박비	-	-	-	-	-	-	-	-
식음료비	29.2	32.0	32.0	28.8	43.5	28.1	48.6	31.8
교통비	23.5	30.9	28.6	24.6	37.7	40.1	26.4	24.3
여행사지불비	0.1	0.0	0.1	-	0.1	0.3	0.0	0.2
문화서비스비	1.8	1.2	1.3	2.1	1.9	1.7	1.2	2.3
운동및경기비	2.0	0.9	2.9	1.1	0.2	2.5	1.7	2.6
오락서비스비	6.3	4.8	4.3	7.6	5.5	4.4	4.2	6.0
쇼핑비	2.5	2.3	2.6	1.7	6.4	10.7	4.2	4.4
여행보험비	0.0	-	0.0	-	0.1	0.0	-	0.0
장비임대비	0.7	0.6	0.6	0.5	0.1	0.4	1.2	1.0
기타비용	11.6	17.8	12.5	10.6	15.2	24.2	6.8	13.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패키지비	2.7	8.7	16.9	6.1	3.3	9.9	9.8	0.7
숙박비	-	-	-	-	-	-	-	-
식음료비	25.3	30.2	31.7	38.7	33.3	32.1	33.1	28.6
교통비	27.9	39.2	33.4	37.9	38.2	28.1	34.6	42.2
여행사지불비	0.1	0.1	0.2	0.1	0.1	0.4	0.1	0.1
문화서비스비	2.3	2.5	2.3	2.5	3.0	2.6	2.9	5.9
운동및경기비	1.0	1.6	0.6	3.0	0.5	1.3	0.3	3.8
오락서비스비	6.8	6.5	4.8	5.0	6.1	6.3	6.7	12.7
쇼핑비	10.8	34.3	35.5	18.8	22.9	11.0	19.5	19.4
여행보험비	0.5	-	0.0	0.0	-	0.1	0.1	0.2
장비임대비	0.4	0.3	0.2	0.2	0.6	1.0	2.0	0.4
기타비용	24.9	39.2	28.4	48.1	27.5	18.3	25.7	27.5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4> 내국인 관광객 거주지역별 관광목적지(숙박여행)

(단위: %)

관광지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합계
서울	0.9	1.0	0.5	2.3	0.7	1.6	0.6	20.4	26.5	4.1	11.8	6.2	11.0	7.6	2.0	2.6	-	100.0
부산	9.3	2.0	2.2	0.5	-	0.5	3.1	2.7	4.0	2.2	1.8	1.5	7.6	17.3	40.9	3.7	0.8	100.0
대구	5.7	3.2	4.0	1.1	-	0.5	-	2.2	9.3	2.3	1.9	4.3	2.8	39.6	18.3	4.5	0.5	100.0
인천	2.6	2.2	0.4	5.6	-	1.8	-	16.6	21.9	4.1	13.2	6.6	6.6	11.4	1.5	5.4	-	100.0
광주	11.0	3.3	-	0.5	0.9	1.7	-	2.7	2.6	2.7	9.1	5.9	56.2	-	1.1	2.2	-	100.0
대전	14.1	2.6	0.5	0.4	0.4	-	0.4	6.8	4.8	15.5	28.9	13.0	0.8	7.7	2.8	1.3	-	100.0
울산	2.1	7.9	7.9	-	-	-	19.6	1.1	4.5	2.2	2.1	-	1.0	19.8	29.7	1.1	0.9	100.0
경기	4.1	2.2	-	6.6	1.3	0.8	0.2	14.8	26.5	5.1	12.8	6.1	8.0	7.4	1.1	2.6	0.2	100.0
강원	12.7	4.9	-	2.8	-	-	1.6	11.8	43.0	0.5	8.7	1.0	1.4	3.4	2.5	5.6	-	100.0
충북	10.3	3.9	0.4	3.6	-	4.9	1.9	7.4	16.2	16.5	12.5	1.2	1.5	10.2	4.6	4.6	0.4	100.0
충남	15.7	4.7	0.4	3.6	-	4.6	0.4	13.0	8.8	5.6	27.3	5.6	1.9	2.4	3.0	2.7	0.4	100.0
전북	8.4	1.0	0.3	3.5	1.2	7.8	0.7	7.5	2.6	3.4	8.8	36.9	9.5	1.7	4.0	2.3	0.3	100.0
전남	9.2	3.1	1.0	1.2	15.9	1.7	0.2	2.4	2.4	0.9	1.6	7.4	43.4	1.1	3.6	4.8	0.2	100.0
경북	5.9	4.4	19.6	0.7	0.4	-	1.0	2.2	10.5	2.4	1.4	0.8	5.0	37.6	3.0	5.3	-	100.0
경남	6.5	14.9	2.3	0.5	0.3	0.4	1.3	2.5	5.0	2.0	1.7	1.5	5.9	6.6	46.9	1.1	0.6	100.0
제주	8.4	8.4	-	4.3	6.1	-	-	0.8	-	3.3	1.5	-	0.8	0.7	2.3	63.3	-	100.0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5> 내국인 관광객 거주지역별 관광목적지(당일여행)

(단위: %)

관광지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합계
서울	10.4	-	0.2	6.8	0.2	-	0.2	57.5	11.6	4.2	5.5	1.9	0.7	0.5	0.2	-	-	100.0
부산	2.2	22.2	7.4	-	-	0.4	4.5	0.9	0.8	1.3	0.9	0.8	4.3	16.6	37.6	-	0.8	100.8
대구	5.5	5.8	21.8	-	-	0.4	-	1.1	3.6	2.1	1.1	1.2	1.4	45.3	10.8	-	0.5	100.5
인천	15.8	-	0.6	24.8	-	1.4	-	30.7	14.3	2.6	4.0	2.5	1.5	0.7	0.6	0.6	-	100.0
광주	3.6	1.0	-	-	-	2.8	1.3	-	-	-	-	0.5	7.7	81.2	0.9	0.9	-	100.0
대전	9.6	0.9	0.9	-	-	6.2	-	1.0	4.0	18.5	39.9	12.6	2.7	1.4	2.3	-	-	100.0
울산	2.3	3.4	0.5	-	-	-	52.9	-	-	-	0.5	-	0.9	33.4	6.0	-	0.9	100.9
경기	7.8	0.4	-	10.9	-	0.3	-	43.7	15.3	2.2	12.9	2.1	1.9	2.4	-	-	0.2	100.2
강원	11.8	-	0.5	0.8	0.6	-	0.9	11.8	64.4	1.6	-	-	-	7.2	0.5	-	-	100.0
충북	15.6	1.1	1.2	1.2	-	7.0	-	4.5	7.9	42.1	8.7	4.2	1.2	4.5	0.6	-	0.4	100.4
충남	11.5	0.8	1.9	1.1	-	13.3	-	7.1	2.2	3.2	44.0	5.6	5.1	2.3	1.9	-	0.4	100.4
전북	4.7	0.7	0.2	0.5	1.1	7.8	-	1.3	0.3	1.5	7.3	65.4	5.4	1.4	2.5	-	0.3	100.3
전남	1.6	0.5	0.3	-	18.6	0.2	-	0.7	0.3	0.3	6.1	65.4	0.9	3.8	-	-	0.2	100.2
경북	2.9	4.2	17.5	-	-	0.9	0.9	0.9	6.7	1.7	0.3	0.9	3.6	54.1	5.5	-	-	100.0
경남	0.9	12.2	7.9	-	-	0.5	0.6	0.2	0.4	0.2	0.9	1.4	3.6	2.5	68.7	-	0.6	100.6
제주	2.9	-	-	-	0.4	-	-	0.7	-	-	-	-	-	-	-	96.0	-	100.0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6> 세부품목별 관광소비지출(국민국내관광 전체=숙박여행+ 당일여행)

(단위: 십억원)

관광 목적지	1)패키지 지비용	2)숙박 비	3)식음 료비	4)교통비 및자동차 임대비	5)여행사 지불비	6)문화사 비스비	7)운동및 경기비	8)오락사 비스비	9)기념품 및쇼핑비	10)여행 보험비	11)장비 임대비	12)기타 비용	(합계)
서울	342.1	61.2	218.0	504.0	11.5	13.1	9.6	52.2	69.2	1.0	4.8	382.5	1,669.2
부산	126.6	35.9	121.9	215.3	1.5	6.8	3.9	27.8	34.9	-	3.6	161.6	739.6
대구	58.8	22.7	91.0	119.0	0.2	5.5	3.8	23.2	23.1	0.0	2.6	84.9	434.9
인천	34.5	33.9	122.3	151.6	0.0	7.1	7.0	27.0	22.0	0.2	3.6	106.6	515.9
광주	20.6	14.4	46.6	90.3	0.1	3.4	1.3	10.2	22.9	0.1	0.7	65.6	276.4
대전	33.8	15.8	53.0	90.2	0.5	3.2	2.4	11.5	25.7	0.0	1.2	76.3	313.5
울산	16.9	12.1	55.2	54.0	0.1	2.0	2.0	10.0	8.3	-	1.3	39.4	201.3
경기	205.4	127.9	512.8	571.5	5.8	30.2	31.1	106.5	86.3	0.8	14.6	418.4	2,111.4
강원	25.7	197.8	485.2	309.0	0.6	27.0	25.1	104.4	97.7	1.0	14.6	246.0	1,534.4
충북	46.1	47.1	138.2	138.4	0.4	7.8	7.1	30.3	48.4	0.2	3.5	130.0	597.6
충남	113.2	108.4	302.5	231.8	0.6	16.7	15.4	62.7	94.7	0.1	8.1	192.8	1,146.9
전북	56.5	65.4	208.0	187.3	0.8	12.3	10.3	44.6	75.3	0.2	5.0	199.3	864.9
전남	46.9	108.3	342.9	295.2	0.7	20.5	10.4	73.7	118.7	-	6.5	241.1	1,264.9
경북	90.5	120.2	359.5	275.2	1.0	19.6	16.3	82.4	74.7	0.9	10.0	209.2	1,259.5
경남	85.3	95.9	336.9	287.2	0.4	19.2	9.1	77.3	98.3	0.7	10.2	280.5	1,301.0
제주	8.8	46.0	99.3	116.1	0.0	7.6	5.0	32.6	39.4	0.1	2.2	70.4	427.5
북한	-	2.5	8.7	4.3	-	0.5	0.3	1.9	2.5	-	0.2	3.7	24.5
(합계)	1,311.7	1,115.4	3,502.1	3,640.5	24.3	202.3	160.1	778.3	942.0	5.4	92.8	2,908.4	14,683.4

- 한국관광공사(2006)

<부록 표 7> 지역별 업종별 부가가치계수 및 고용자투입계수(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부가가치계수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농림수산물	0.586	0.542	0.510	0.638	0.612	0.597	0.652	0.611	0.605	0.616	0.599	0.427	0.541	0.576	0.610	0.558
2.광산품	0.493	0.584	0.504	0.590	0.585	0.556	0.503	0.540	0.614	0.629	0.572	0.523	0.766	0.553	0.570	0.603
3.음식료품	0.234	0.222	0.267	0.625	0.302	0.183	0.572	0.268	0.122	0.300	0.323	0.214	0.178	0.308	0.457	0.231
4.섬유및가죽제품	0.345	0.333	0.289	0.286	0.253	0.250	0.257	0.261	0.255	0.290	0.261	0.277	0.326	0.248	0.234	0.233
5.목재및종이제품	0.311	0.271	0.282	0.288	0.295	0.306	0.285	0.274	0.282	0.274	0.266	0.255	0.189	0.249	0.230	0.283
6.인쇄,출판및복제	0.405	0.416	0.411	0.464	0.448	0.464	0.464	0.464	0.464	0.450	0.450	0.456	0.456	0.456	0.482	0.464
7.석유및석탄제품	-0.602	0.222	0.072	-0.411	-0.214	0.337	-0.133	-0.006	0.301	-0.145	0.088	0.100	0.313	0.007	-0.007	0.070
8.화학제품	0.316	0.243	0.309	0.296	0.297	0.205	0.329	0.230	0.160	0.270	0.266	0.279	0.162	0.287	0.322	0.256
9.비금속광물제품	0.288	0.295	0.288	0.293	0.298	0.390	0.285	0.341	0.259	0.312	0.397	0.250	0.245	0.287	0.277	0.268
10.제1차금속제품	0.199	0.180	0.181	0.156	0.175	0.156	0.182	0.184	0.218	0.188	0.203	0.164	0.152	0.180	0.192	0.018
11.금속제품	0.311	0.345	0.323	0.282	0.289	0.280	0.323	0.320	0.271	0.339	0.322	0.321	0.285	0.304	0.257	0.269
12.일반기계	0.294	0.282	0.283	0.250	0.265	0.271	0.306	0.252	0.270	0.264	0.270	0.301	0.267	0.275	0.295	0.251
13.전기및전자기기	0.273	0.283	0.281	0.215	0.265	0.270	0.182	0.221	0.211	0.228	0.204	0.301	0.265	0.190	0.233	0.166
14.정밀기기	0.298	0.294	0.301	0.273	0.275	0.281	0.274	0.272	0.260	0.273	0.273	0.272	0.268	0.265	0.207	0.275
15.수송장비	0.209	0.195	0.196	0.205	0.205	0.201	0.195	0.194	0.282	0.248	0.251	0.224	0.214	0.255	0.249	0.298
16.가구및기타제조업	0.337	0.303	0.312	0.331	0.266	0.250	0.272	0.285	0.356	0.291	0.200	0.298	0.284	0.287	0.320	0.374
17.전력, 가스및수도	0.493	0.262	0.290	0.590	0.692	0.364	0.594	0.589	0.533	0.456	0.595	0.592	0.415	0.348	0.586	0.507
18.건설	0.452	0.456	0.456	0.448	0.447	0.447	0.455	0.458	0.451	0.452	0.448	0.453	0.449	0.452	0.456	0.454
19.도소매	0.590	0.579	0.581	0.617	0.613	0.612	0.613	0.609	0.609	0.615	0.608	0.612	0.604	0.603	0.602	0.609
20.음식점및숙박	0.397	0.374	0.372	0.398	0.403	0.407	0.375	0.383	0.379	0.395	0.399	0.431	0.418	0.419	0.548	0.463
21.운수및보관	0.367	0.386	0.591	0.526	0.533	0.475	0.536	0.514	0.325	0.532	0.426	0.438	0.416	0.505	0.497	0.437
22.통신및방송	0.493	0.465	0.475	0.501	0.496	0.480	0.494	0.475	0.460	0.507	0.486	0.501	0.478	0.480	0.492	0.479
23.금융및보험	0.672	0.595	0.601	0.622	0.608	0.622	0.594	0.599	0.600	0.575	0.562	0.582	0.561	0.572	0.539	0.590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0.636	0.718	0.707	0.725	0.719	0.743	0.716	0.742	0.745	0.748	0.731	0.724	0.726	0.738	0.720	0.728
25.공공행정및국방	0.718	0.707	0.672	0.749	0.627	0.673	0.710	0.730	0.770	0.684	0.733	0.699	0.648	0.588	0.707	0.706
26.교육및보건	0.674	0.675	0.688	0.696	0.716	0.724	0.699	0.696	0.686	0.684	0.696	0.668	0.675	0.681	0.681	0.695
27.사회및기타서비스	0.461	0.507	0.548	0.507	0.528	0.515	0.508	0.519	0.532	0.507	0.507	0.519	0.520	0.519	0.545	0.571
28.기타	-	-	-	-	-	-	-	-	-	-	-	-	-	-	-	-

고용자투입계수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농림수산물	0.037	0.062	0.042	0.084	0.046	0.045	0.060	0.049	0.045	0.060	0.043	0.018	0.046	0.041	0.064	0.020
2.광산품	0.005	0.004	0.004	0.012	0.004	0.004	0.004	0.004	0.006	0.005	0.005	0.002	0.003	0.004	0.008	0.006
3.음식료품	0.010	0.004	0.004	0.002	0.003	0.003	0.002	0.003	0.004	0.005	0.003	0.008	0.004	0.004	0.003	0.005
4.섬유및가죽제품	0.009	0.012	0.008	0.014	0.005	0.006	0.010	0.012	0.013	0.011	0.006	0.011	0.004	0.009	0.019	0.087
5.목재및종이제품	0.011	0.006	0.006	0.003	0.003	0.004	0.007	0.003	0.005	0.005	0.007	0.008	0.003	0.005	0.012	0.012
6.인쇄,출판및복제	0.009	0.019	0.007	0.015	0.012	0.011	0.015	0.018	0.026	0.013	0.003	0.012	0.010	0.013	0.015	0.011
7.석유및석탄제품	0.000	0.000	0.002	0.001	0.002	0.000	0.004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2	0.001	0.008
8.화학제품	0.010	0.004	0.005	0.002	0.004	0.002	0.005	0.002	0.001	0.006	0.003	0.006	0.001	0.005	0.005	0.006
9.비금속광물제품	0.006	0.004	0.004	0.006	0.004	0.004	0.006	0.005	0.004	0.006	0.005	0.004	0.004	0.006	0.003	0.006
10.제1차금속제품	0.004	0.001	0.002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11
11.금속제품	0.010	0.008	0.008	0.008	0.006	0.004	0.008	0.007	0.005	0.011	0.006	0.008	0.003	0.005	0.011	0.005
12.일반기계	0.010	0.005	0.006	0.004	0.004	0.004	0.004	0.005	0.005	0.005	0.005	0.007	0.003	0.004	0.006	0.008
13.전기및전자기기	0.006	0.006	0.004	0.006	0.004	0.003	0.003	0.003	0.004	0.004	0.002	0.007	0.002	0.003	0.006	0.002
14.정밀기기	0.008	0.008	0.007	0.010	0.004	0.006	0.017	0.028	0.015	0.017	0.006	0.005	0.009	0.006	0.006	0.039
15.수송장비	0.017	0.003	0.002	0.003	0.005	0.002	0.002	0.002	0.005	0.005	0.004	0.004	0.002	0.004	0.004	0.026
16.가구및기타제조업	0.012	0.007	0.008	0.009	0.009	0.004	0.007	0.008	0.013	0.014	0.005	0.013	0.012	0.008	0.014	0.028
17.전력, 가스및수도	0.003	0.001	0.001	0.003	0.003	0.002	0.004	0.003	0.002	0.003	0.002	0.002	0.002	0.001	0.002	0.002
18.건설	0.011	0.010	0.011	0.011	0.010	0.011	0.010	0.010	0.011	0.010	0.010	0.011	0.010	0.010	0.010	0.010
19.도소매	0.018	0.029	0.026	0.030	0.039	0.038	0.028	0.040	0.040	0.030	0.040	0.026	0.028	0.034	0.038	0.038
20.음식점및숙박	0.020	0.025	0.023	0.025	0.028	0.027	0.026	0.029	0.031	0.028	0.031	0.026	0.028	0.028	0.029	0.027
21.운수및보관	0.013	0.005	0.019	0.017	0.019	0.015	0.026	0.017	0.007	0.024	0.010	0.011	0.008	0.012	0.013	0.013
22.통신및방송	0.003	0.002	0.002	0.004	0.004	0.005	0.004	0.005	0.004	0.003	0.004	0.003	0.003	0.004	0.004	0.004
23.금융및보험	0.005	0.006	0.006	0.007	0.008	0.008	0.009	0.009	0.009	0.007	0.008	0.007	0.007	0.008	0.010	0.009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08	0.007	0.007	0.009	0.007	0.006	0.009	0.007	0.006	0.008	0.006	0.007	0.007	0.006	0.007	0.007
25.공공행정및국방	0.012	0.013	0.010	0.011	0.009	0.011	0.010	0.010	0.011	0.011	0.010	0.012	0.011	0.008	0.008	0.011
26.교육및보건	0.016	0.015	0.016	0.015	0.017	0.016	0.015	0.016	0.017	0.016	0.016	0.015	0.016	0.017	0.017	0.018
27.사회및기타서비스	0.012	0.022	0.015	0.023	0.022	0.025	0.025	0.029	0.029	0.024	0.027	0.027	0.023	0.026	0.020	0.018
28.기타	-	-	-	-	-	-	-	-	-	-	-	-	-	-	-	-

- 자료: 한국은행(2009)

<부록 표 8> 지역별 업종별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고용 추계결과(2005년 기준)

구분	산업 (10대분류 기준)	TVA (십억원)	관광고용 (천명)	구분	산업 (10대분류 기준)	TVA (십억원)	관광고용 (천명)
서울	19.도소매	575.9	17.6	전남	19.도소매	82.7	5.5
	20.음식점및숙박	904.6	45.9		20.음식점및숙박	185.6	15.2
	21.운수및보관	446.5	15.9		21.운수및보관	113.6	2.6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7	0.0		23.금융및보험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인천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27.사회및기타서비스	351.0	9.3		27.사회및기타서비스	190.4	10.3
	19.도소매	84.0	4.3	대구	19.도소매	14.5	0.7
	20.음식점및숙박	159.9	10.7		20.음식점및숙박	45.3	3.2
	21.운수및보관	90.6	1.2		21.운수및보관	94.7	4.3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1	0.0		23.금융및보험	0.0	0.0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경기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27.사회및기타서비스	97.2	4.2		27.사회및기타서비스	60.9	2.9
	19.도소매	231.8	10.5	경북	19.도소매	46.6	3.1
	20.음식점및숙박	494.6	31.0		20.음식점및숙박	193.3	14.9
	21.운수및보관	535.8	17.4		21.운수및보관	156.7	3.7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5	0.0		23.금융및보험	0.5	0.0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대전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구 분	산업 (10대분류 기준)	TVA (십억원)	관광고용 (천명)	구 분	산업 (10대분류 기준)	TVA (십억원)	관광고용 (천명)
충 북	19.도소매	39.4	2.5	울 산	19.도소매	5.2	0.2
	20.음식점및숙박	88.8	6.2		20.음식점및숙박	28.3	1.9
	21.운수및보관	101.9	3.7		21.운수및보관	29.6	0.5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1	0.0		23.금융및보험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충 남	26.교육및보건	-	-	경 남	26.교육및보건	-	-
	27.사회및기타서비스	97.2	4.1		27.사회및기타서비스	28.5	1.3
	19.도소매	71.4	4.4		19.도소매	59.3	3.3
	20.음식점및숙박	186.9	12.4		20.음식점및숙박	181.5	12.3
	21.운수및보관	168.1	5.3		21.운수및보관	188.4	4.6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0	0.0		23.금융및보험	0.4	0.0
광 주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강 원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27.사회및기타서비스	156.0	7.6		27.사회및기타서비스	205.8	10.2
	19.도소매	24.2	1.1		19.도소매	137.8	8.8
	20.음식점및숙박	36.5	2.5		20.음식점및숙박	532.8	28.3
	21.운수및보관	63.1	3.0		21.운수및보관	192.4	5.2
전 북	22.통신및방송	-	-	계 주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1	0.0		23.금융및보험	0.6	0.0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27.사회및기타서비스	44.0	2.1		27.사회및기타서비스	250.8	9.1
	19.도소매	54.6	3.6		19.도소매	112.5	7.0
전 남	20.음식점및숙박	116.9	8.9	전 국	20.음식점및숙박	215.3	12.3
	21.운수및보관	128.5	4.2		21.운수및보관	79.7	2.3
	22.통신및방송	-	-		22.통신및방송	-	-
	23.금융및보험	0.1	0.0		23.금융및보험	0.1	0.0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5.공공행정및국방	-	-
	26.교육및보건	-	-		26.교육및보건	-	-
전 국	27.사회및기타서비스	143.5	7.9		27.사회및기타서비스	94.5	3.0

## A study on the scale estimation of tourism value-added(TVA) in regional econmies based upon the regional tourism satellite accounts(TSA)

Im, Chae-Young · Ryu, Jong-Hyun · Kim, Jae-Gu · Ko, Tae-Ho

### Abstract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 OECD, WTO offer their own options to clarify and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economy to members, which can be represented as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TSA at the regional economy level, and tries to estimate the size of tourism industry in each regional economy. Generally speaking, the regional TSA should show the transac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es, and this has been observed in the case of the Canadian provincial and territorial TSA(PTSA). Comparatively, regional TSA in this paper is constructed based on inter-regional tourism transactions using the actual tourism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investigated by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nd national accounts by bank of Korea.

**Keywords:** TSA(tourism satellite account), inter-regional transaction, regional TSA, tourism consumption, tourism value-added, tourism GRDP.